

기초수급자들 난방비에 운다

목포시 연탄 지원 39% 불과...겨울나기 막막

“가난뱅이인 내가 죄인이지 시가 무슨 잘못이 있겠소”

지난해보다 일찍 찾아온 한파 속에서 삶을 비관한 70대 노인의 말에 한이 맺혀있다.

매년 겨울이면 난방비 격정인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올해도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마음고생과 함께 더욱 추위에 떨어야만 할 것 같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독감과 신종 플루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목포시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난 3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8천 500여 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천700여 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가보조로 15만원 상당의 연탄 구입표(쿠폰)를 받는 목포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

층은 38.8%에 불과한 660가구에 그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탄가격은 지난해 11월 연탄(22구공) 한 장에 450원이었으나 11월 현재 100원이 오른 550원으로 경증 뛰었다. 더욱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소외계층 대다수는 고지대나 연탄배달이 힘든 골목을 끼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연탄배달 특성상 이러한 곳의 연탄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길고도 긴 겨울 추위와 싸워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게다가 돈이 없어 아예 연탄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옷을 두껍게 겹쳐 입고 이불

을 뒤집어쓰는 등으로 겨울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시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나서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못한 실정이다. 이에 무엇보다 시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각 동사무소에서 난방비 수급대상을 조사한 결과 660가구에 집계돼 현재 이 부분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 이모(목포시 산정동)씨는 “경로사상, 불우이웃과 함께라는 구호와 무늬행정만 펼쳐기보다는 현실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의 구체 행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겨울 소금밭 정겨운 '워낭소리'

신안문화원(원장 김강민)은 21일부터 27일까지 목포 여객선터미널 4층 목포 종합예술갤러리에서 신안 천일염을 주제로 한 특별사진전 '소금이 온다'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디지털 사진클럽인 'B&G' 회원들이 2년 동안 신안지역의 여러 염전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작품을 신안풍경, 염전생태, 염전작업, 염전풍경, 염전체험 등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눠 전시한다. 사진은 <신안군 제공>

서남해 여객선 이용객·물동량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경기침체와 신종 플루에도 불구하고 10월 현재 전남 서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목포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삼열)은 “10월 현재 연안 여객선 이용객 497만명과 차량 129만대를 수송해 전년 동기대비 각 8%, 12%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대비 같은 기간 여객 1천 318만명, 차량 212만대에 비교해 각 38%, 61%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로별로는 목포~제주간의 항로가 이용객 5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지도~임자 43만명(24% 증가), 사육~병풍이 35만명(15% 증가)으로 늘어났다.

완도권의 완도~청산 간은 25만명으로 22% 급증했고 팜골~노화 48만명(8% 증가) 등 주요 항로별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에 부진했던 목포항 물동량도 3·4분기 10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93%(982만8천) 수준으로 지난 2·4분기 전년 동기대비 81%(589만9천)에 비해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고유가 및 한일영향에도 불구하고 철재류, 시멘트, 수출 자동차 등 목포항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이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멘트, 철재류, 차량이 각각 6.3%, 1.8%, 2.3% 감소했지만 울 2·4분기 대비 증가 폭은 4.4%, 11.6%, 27.1% 증가한 것으로 1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후 이전 물동량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무안 군의원·공무원 등 정례회기중 고스톱 물의

무안 군의회 180회 정례회 기간중 군의원과 공무원, 면장 등이 일명 고스톱을 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6시 삼향면 면사무소 앞 사무실에서 3시간 고스톱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은 무안군이 '찾아가는 으뜸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날이어서 이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군민들의 입

살에 오르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업도시와 한중국제산단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군의원과 공무원들이 회기중에 고스톱을 칠 수 있느냐”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릴 만큼 혼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신안 영어교육 '새바람' 원어민교사 섬지역 배치

신안교육청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섬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신안교육청(교육청 나연수)에 따르면 전남도 교육청과 신안군의 지원을 받아 지난 10월 관내 섬지역 중학교 1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 미국·캐나다 출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2명을 배치했다.

그동안 육지의 학교는 대부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었지만 대부분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지원자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신안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나도의 분교장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있어 신안 관내 전체 91%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압해중에 배치된 안 토머스(28·미국)씨는 신안교육청 영어체험 학습장에서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1회 4시간씩 체험 위주의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교육청은 앞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비금·도초·안좌·압해·지도읍 등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영어교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우리는 사랑의 연탄 메신저” 목포화전 사회봉사단 20가구에 4천장 전달

한국전력 목포지점(지점장 손명수·지휘장 배상기) 사회봉사단은 지난 17일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사진>

30여 명의 봉사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구입한 연탄 4천여장을 20가구에 전달하고 노후 전기시설 보수와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손명수 목포지점장은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달콤한 초록마을로 초대합니다” 27·28일 신안시금치축제



'제 2회 신안 시금치 축제'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신안군 도초면 시목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시금치캐기 체험행사를 비롯해

섬뜰한대회, 비금·도초 버스투어, 주민가요열창, 특선 시금치요리전 시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신안 섬초'라는 브랜드명으로 널리 알려진 신안산 시금치는 겨울철 차가운 바닷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자라는 특성 탓에 게르마늄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잎이 두껍고 부드러운 당도가 뛰어나다. 특히 최근 연구결과 타지역 시금치에 비해 간암세포 성장 억제효과가 입증됨으로써 건강식품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h3>대인동삼일부동산</h3> <p>☎(T)223-1140, 5210 ☎(F)011-8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관서점·구관)</p> <h4>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h4> <p>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p> <p>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p> <p>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3>상무랜드공인중개사</h3> <p>☎(FAX)383-5221 ☎(T)011-609-5221 (구 상무대 점포)</p> <h4>▶빌딩(임대용, 투자용)</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590평 건물4,500평(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용차 12억 • 건물 보증금 29억 월세 6,000만원 (매가 110억) <h4>▶기타용도</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동산동 약 22만2천평 평당 10만원 • (주거지역) 정동동 2,300평 평당 45만원 (요양원 등 적용) <h4>▶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 150평(9층) 매가 평균 450만원 개발가능 있음 •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적용 • 세정 이윤확대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환영 <p>●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p> <p>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찾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p>	<h3>금산공인중개사</h3> <p>T.681-5888 H.011-601-5354</p> <p>(금호동 사원주역 건너, 2순환도로변)</p> <h4>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h4> <h4>위치</h4> <p>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4면 광로변)</p> <h4>대지</h4> <p>약 2850㎡, 가격 협의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시설, APT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광주시청 접근성과 5.18 광로변) • 광주 최고의 상권 •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h3>한길부동산중개</h3> <p>광주사원 1301-1(상무지구 5.18광로변) 상담전화 ☎ 011-647-4114</p> <h2>주유소 매매</h2> <p>북구 중흥동 1,250㎡</p> <p>매매가 12억(임대가)</p> <p>대로변, 위치좋은, 공시지가이하</p> <p>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p> <p>- 전원주택 매매 -</p> <p>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p> <p>대지 1,270㎡ 매매가 4,500만</p> <p>☎ 상담전화 ☎ 011-647-4114</p>	<h3>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h3> <p>☎ 062)228-6600 H.P 010-5616-8988</p> <p>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p> <h3>“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잔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p>☎~ 지금 전화 주십시오!</p> <p>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p>	<h2>무등빌딩임대</h2> <p>•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p> <p>•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p> <p>임대문의 ☎ 062)222-0527</p>
--	--	---	--	--	---